

조부모가 아이들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부모 둘이서 아이를 키우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한국은 물론 이곳 미국에서도 조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경우도 많다. 낮 시간 동안 꼼짝없이 직장 생활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아에 너무 참견을 많이 하면 조금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핀잔을 주시거나 하면 “알아서 할 게요!” 라는 가시 돋친 말이 튀어 나오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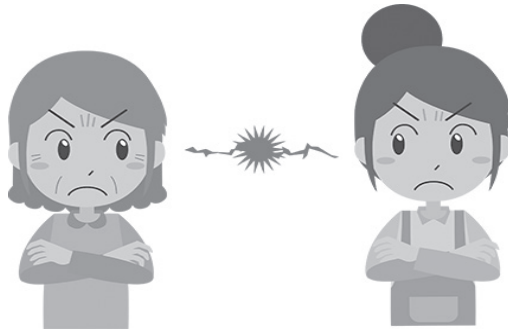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관계부터 원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적절한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둘 필요가 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자신만의 가족이 생긴 만큼 꼭 필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묵혀 두었던 앙금이 풀릴 때도 있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조부모는 도와주려고 한 충고인데 부모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부모의 눈에는 부모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 할 일 배분하기

조부모는 손주를 아이를 기를 두 번째 기회라 생각한다. 자신의 육아 원칙을 완강히 고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해주지 못했던 시간과 돈을 들여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너무 오나오나 해서 놀이방이 지나치게 어지럽다든지, 말도 없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준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 서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배분하고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조부모도 주어진 역할을 통해 육아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애를 돌보는 걸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완곡하게 말하고 보육원 등에 아이를 위탁한다.

2. 육아 주도권 되찾기

“아기 모자 씌우지 않고 뭘 하고있니?” 혹은 “수유할 때 아이를 그렇게 드는 거 아니야!” 등의 충고를 들으면, 우선 속에서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딱딱딱 딱딱 따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할 때이다. 어떤 충고가 불필요하고, 어떤 충고가 필요한지 침착하게 생각해보도록 한다. 생각이 정리되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 아이들의 조부모는 나의 부모이다. 당연히 더 나은 육아를 위해 충고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리자.

3. 믿음을 드리기

아이를 기르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는 자라면서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기관은 물론 조부모로부터도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조부모의 방법을 믿어봐 주는 것도 좋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방법에 대해 시시콜콜 다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 약간의 자유와 재량은 서로에게도 좋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람마다 다른 규칙과 신념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특히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엔 조부모가 한없이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큰 선물을 받거나, 무한정으로 TV 보는 등의 자유도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

4. 대화하기

조부모와 부모 간 관계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이다. 그렇다고 짜증이 섞인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시점과 감정을 이해시켜드리는 동시에, 특정 사건에 집중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말 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저도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혹은 “감사해요, 여기는 한번 제가 알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등의 말만으로도 분위기는 쉽게 전환 될 수 있다.

5. 배우자에게 부탁하기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이 육아에 참견한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꾸 잔소리를 하시거나 부담을 주신다면 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직계 자녀인 당신의 배우자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6. 나의 결정에 확신 갖기

육아 초반, 부모의 마음은 불안정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리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한다. 그럴수록 조부모가 육아에 참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육아 방식은 제각기 다를 뿐, 확실하게 옳고 그르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육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조부모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7. 갈등의 원인 찾기

고부갈등은 육아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조부모가 육아에 참견한다는 건 아이들을 기르는데 큰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 파고들어 알아보아야 한다. 잔소리가 듣기 싫은 이유는 혹시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인을 잘 파악하고 나면 갈등에 한층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8.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줄도 알아야 한다. 마법의 단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지나친 참견과 적절한 도움 사이의 선을 명확히 긋고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좋은 표현이다. 여러분의 부모도 몇십 년 동안의 인생 경험으로 지식을 체화하신 분들이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다소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IRS Special Enrollment Exam

무료 강의

유튜브에서 "장홍범 교수"를 검색하시어 전과목 족집게 무료 강의를 경험해 보세요

30년 이상의 강의 경험, 한인 세무사들의 대부

현 미주공인 한인세무사협회 회장인 장홍범교수(CPA겸 EA)의

합격률 100%의 명강의

온라인 동영상 재택 공부과정 \$700

온라인 재택 공부과정을 금년 12월이내에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개강 예정인 오프라인 강의(\$1,400)에 무료 수강

“학력, 전공,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2달이면 합격 100% 합격 보장

세무회계 사무실 개업에 필요한 실무연습

www.eatax.net 온라인으로 실무연습 가능

개인 세금보고서 시나리오 30개, 법인 세금보고 시나리오 10개로 직접 세금보고 업무연습

수강 신청 및 시험 상담 714-393-2238

시험 정보 및 동영상 강의

www.eatax.net

www.eatax.com

▲ 세무사 시험 안내서

▲ LA 강의 모습

